

탈핵엄마선언	보도자료		
	보도일시		
	담당	장하나	010-3693-3971
배포일시	2017. 10. 11. 수	총 4매 (별첨 0건)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 탈핵엄마선언

- 일시 : 2017년 10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남쪽 끝 (세종대로 사거리)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외 17개 단체
- 순서 (사회 : 장하나 두리 엄마,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1) : 류수정 지우 엄마,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회원
  - 발언(2) : 최경숙 세딸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 발언(3) :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4) : 김신애 주안·예안 엄마,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선언문 낭독 : 전원
- 퍼포먼스 : 강미정 태연·나영 엄마,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이와 엄마가 함께 쓰는 초대형 붓글씨 <탈핵 엄마·아빠 선언,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 탈핵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는 발언과 참여의 기회가 없

다. 또한, 이번 주말 실시되는 2박 3일의 합숙토론 역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이 참여하기 힘든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 오늘(11일) 오전, 미래세대가 배제된 공론화 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엄마, 아빠들이 직접 나서 탈핵선언을 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엄마, 아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는 모토로 선언에 임했다.

□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과 아이들은 갑상선 암 등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며 핵발전소 부작용은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꼬집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가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체로 거대한 핵폐기물이 되어 미래세대에게 수십만 년 간 처리 곤란한 짐이 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물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가동 포기도 요구했다.

□ 특히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핵폐기물의 처리·보관의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며 핵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에 탈핵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은 “2016년 마을 주민 40명의 소변 검사를 했는데, 전원으로부터 평균치 이상의 삼중수소(인공 방사능)이 검출됐다. 수돗물 안 먹고 생수만 사 먹었는데, 5살 밖에 안 된 우리 손자한테서도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탈출하고 싶어도 이주 대책이 없다.” 며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가 현재진행형임을 증언했다. 또한 “10~20년 후에 내 손자도 나처럼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피가 마른다.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탈핵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언문 전문]

# 탈핵엄마선언

오늘 나 '○○○'는(은) '○○○'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

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제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제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달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